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신명기 5장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32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십계명, 왜, 어떻게, 어디로.... 과연 축복인가 부담인가?

계명과 명령이 주는 불편한 이미지?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위'를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명령' '법'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과 엘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계명하면 무엇이 연상되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한 혹은 정반대의 생각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지켜야지...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이렇게 이미 외면받고 있는 '십계명'을 다시 꺼내들어야 하는 걸까요? 반대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끊임없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를 질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질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왜 그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면 진심으로 권합니다. '십계명'을 주목하시라고.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분의 가장 분명하고 따끈따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펼쳐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펼쳐들어야 하는지, 정말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 : 두 가지 배경과 한 가지 목표

약속은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의 가치는 그것이 크냐, 아니냐에 달려 있거나 그 약속을 품나게 했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와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십계명을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두 가지 배경의 첫번은 누구와 맺은 약속이냐? 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냥 힘있는 신이 그의 즐거들인 인간에게 너 안하면 죽어, 혹은 이렇게 하면 이빠해 즐겨 라고 던져 놓은 명령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라는 큰 그림 안에 놓인 약속을 하시는 그 분의 약속 당사자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거기에는 ‘관계’라는 배경이 놓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그 명령들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들 하나하나는 일차적으로 모든 상황과 공간에 적합하게 던져진 그런 명령들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을 전제로 던져진 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배경을 기초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론은 이 계명은 목표가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이해가 좀 더 잘 되도록 정리를 하자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약속이 ‘누구와’ 맺어진 것인가를 알아야 하고 ‘어디서’ 실행되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지 역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 : 우리는 기계로 부름받지 않았다.

오늘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기 전에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도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약속을 맺게 되는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머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 당사자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계명, 혹은 명령을 떠올리면서 연이어 떠 올리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순종’ ‘깍소리없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누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계(로봇을)를 향해 이런 말을 늘어 놓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렇게 우리 자신을 대우해 버리고 맙니다. 왜요? 이게 쉬우니까요!!!

여러분 십계명의 특성과 축복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십계명을 펼쳐서 보아야 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인 것은 그것이 나와 마음을 나누려고 친구가 되려고 하시는 분의 마음을 담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읽고 느끼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빨리 그냥 정답이 무엇인지 물어서 그것을 잘 해내는 기계가 되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못되었다고 너무 여러분 자신을 구박하거나 몰아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주 자주 이번 씨즌 내내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요 파트너이다. 그는 나를 위해서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 날랐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좀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 분의 마음을 꺼내 보셔야 합니다.

가나안의 땅에서 : 나는 짐승이 아니야

신명기는 십계명을 주시는 본문을 마무리 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시 보시지요.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앞에서 그들에게 준 모든 명령은....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땅에서 행하게 하라. 입니다. 분명히 구체적인 컨텍스트가 주어진 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땅에서 행해야 하는 걸까요?’ 아 당연하지요 목사님 그럼 광야에서 지켜야 하나요? 가나안을 갈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아니요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진공이 아니라 이미 가치가 문화가 번성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공 만능 주의, 자기 행복 지상 주의가 그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행복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즉각적이고 본성적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본위의, 본능 중심의 자기 행복 혹은 성공

지상주의의 가치가 팽배한 곳에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 가면.... 인 것입니다. 그 곳은 그저 행복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기 위해 '십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행복해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의 풍조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억을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꺼내 보아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뜻 :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은 약속을 맺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사장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메우고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막아서야 하고 누군가는 대신 맞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꺼내 보십시오. 아버지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혼자 보기 힘들면 같이 격려하며 보아야 합니다. 그 날이 올때까지!

사실은 이미 이루신 일 : 우리에게 주신 선물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홀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 하여도 말입니다. 게다가 그것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나의 연약함이 그 사이에 끼기 시작하면 더더욱....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낙심하기가, 혼돈스럽기가 딱입니다. 그것만큼 한심하고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치는 것은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은 우리에게 예배가 있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십계명은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이미 이루신 것을 혹은 장래의 큰 영광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디딤돌 교회 식구들에게

사실 십계명 설교를 저는 디딤돌 1주년되는 주일에 씨리즈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여러분들과 십계명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디딤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격려하며 초대합니다. 다음 내용을 기억하시고 십계명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디딤돌 됴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로봇이 될 수 없습니다. :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르신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삽시다. 그분을 십계명을 통해서 더욱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의 풍조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 우리는 세상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삽시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꺼내보며 나그네됨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더욱 낮아지고, 더욱 막아서고, 더욱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신 일을 위해 같이 부름받았습니다. :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한 전투에 함께 부름 받았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미 이겼다는 것과 우리가 동지임을 기억하게 해 줄 것입니다.